

같이 보기

: 다녀왔습니다①

우리, 같이 산행하러 갈래?

부산지역본부 환경위생팀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TV 프로그램에서나 접했던 일이 부산지역본부 환경위생팀에서 일어났다. 지난 6월 초 환경위생팀 대화방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박진환 파트장님이 보낸 메시지였고 주말에 같이 산행을 하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를 읽었다는 숫자 카운트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으나 대화방은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였고 누구 하나 답변을 쉽사리 달지 못하는 눈치였다. 사실 '주말, 직장상사, 산행'이라는 3개의 단어만 들어도 트리플 크라운 같은 느낌을 받으며 직장인이라면 손사래를 칠 판이다. 물론 부장님이 안 보이는 뒤에서 말이다.

팀원들의 산행 참여에 대한 의사가 저조해서인지 자리에서 일어나 거둬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무조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셨다. 이쯤 되면 부하직원들은 다들 눈치를 보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부장님도 알고 있으리라. 요새 애들은 싫어할 게 분명하다는 걸. '산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산행 날짜는 다가



오고 있었다.

그렇게 산행을 약속한 6월 5일 토요일 9시, 동아대학교부속병원 앞에서 부장님을 필두로 무조건 자발적으로 김유빈 대리, 김희민 사원, 한다희 사원, 정은주 사원, 서대교 사원까지 5명이 모였다.

과연 무사히 산행을 끝마치고 모두 다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 이번 산행을 주도한 박진환 파트장님과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다.

● Mini Interview **박진환 파트장** ●

이번 산행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 업무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기 위하여 산행을 통해 자신감 부여, 동료애 및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산행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 산악자전거(MTB)를 즐기고 있으므로 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산행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막내 직원(여자 셋)들의 체력을 고려하여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임도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크게 산행코스, 문화탐방코스입니다. 산행코스는 동아대학교부속병원 ➊ 석탑약수터 ➋ 구봉산(봉수대)정상 ➌ 내원정사 ➍ 꽃마을이며, 문화탐방코스는 부산감천문화마을&비석문화마을, 송도 암남공원, 송도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산행을 다녀온 직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였기 때문인지, 제 앞에서는 '최고'라고 했습니다(웃음). 개인적으로 저는 색다른 기분으로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계획이 있나요?
일단 11월 22일 협회 창립기념일에도 산행 가지 얘기는 했는데, 그 전에 부산 갈맷길 또는 동네 한 바퀴를 한 번 더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한 팀원들도 같이 가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무조건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려야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나아가 소통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 같이 FUN! 나도 너도 즐거운 직장 생활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Future : 미래가 있고, Utility : 조직에 쓸모가 있으며, New :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직장인)

5명 모두 이번 산행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할 것이며 더군다나 팀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산을 함께 오르며 90년대생 직원들과 파트장님이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번 산행을 시작으로 박진환 부장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부산지역본부 환경위생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Mini Interview **참여 직원들** ●

김희민 사원

산행을 가기 전에는 걱정한 기대반이었습니다. 코스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팀원들과 같이 등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산을 타보니 관한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좋았고 팀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다희 사원

코로나19로 회식은 물론 함께 모일 기회가 없는 요즘, 부장님의 주도하에 팀원들과 함께 걷고 먹고 걷고 먹는 산행으로 아주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대교 사원

모처럼 회합한 날씨에 팀원들과 트레킹 하며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낸 거 같습니다!

김유빈 대리

직원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해진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정은주 사원

매일 운전하고 컴퓨터 업무만 하다가 모처럼 운동도 하고 직원들과의 단합의 시간도 가져서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신입사원도 있었는데 덕분에 많이 친해진 거 같아서 좋은 하루였습니다.